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잠언 15:1 – Ted Hi

Idebrandt가

Chatgpt를 사용하여 쓴 속담 이야기

해가 지면서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물들이며 다니엘의 백미러에 눈부신 햇살이 드리워졌다. 그는 혼잡하고 뻘뻘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워가 싫었다. 특히 공사 때문에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때는 더욱 그랬다. 끝없이 멈췄다 가며 경적을 울리고, 유독한 스모그처럼 공기 중에 맴도는 긴장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가 바라는 건 그저 집에 가서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오늘 하루의 끔찍한 기억을 잊는 것뿐이었다.

검은색 픽업트럭 한 대가 그의 뒤로 쏜살같이 달려오며 차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고, 심지어 갓길까지 이용해 정지해 있는 차들을 불법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백미러를 흘끗 볼 틈도 없이 트럭이 그의 차선으로 휩 들어와 그의 차선을 가로막았고,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다니엘은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픽업트럭 운전자가 마치 의기양양하게 "네 얼굴에 대고, 친구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어."라고 비웃듯 브레이크를 밟자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급정거를 해야 했다.

다음 신호등에, 다니엘은 창문을 내린 트럭 운전사 옆에 차를 세웠다. 그는 덩수룩한 수염에 눈빛이 불타는 듯한 건장한 남자였다. 그는 그에게 소리쳤다. "문제 있어, 친구?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다니엘의 첫 번째 본능은 반격하는 것이었다. 모욕을 퍼붓고 그 남자의 분노에 자신의 분노를 맞바꾸고 싶었다. 그때, 마치 그의 생각에 물결이 일듯이, 형과 싸우던 시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대니." 그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 덩치 큰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운전대를 쥐고 주먹을 쥐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창문을 내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기, 혹시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당황한 듯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너한테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야." 다니엘이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정 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했을 뿐이야."

신호가 바뀌었다. 잠시 트럭 운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짧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중얼거린 뒤 엔진을 시동하고 이번에는 조금 덜 무모하게 차를 몰고 떠났다.

다니엘은 숨을 내쉬며 가슴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교통은 여전히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량들로 가득했고, 도시는 여전히 평소의 스트레스로 웅성거렸지만, 분노의 폭풍은 지나갔다. 누군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중 한 명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분노가 너무 심했구나, 그는 생각했다. 부드러운 대답이 더 나은 선택이었고, 그는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만족했다.

다음 출구로 나가 작은 길로 들어서 집으로 향하던 다니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옛 속담이 또 한 번, 붐비는 출퇴근길의 분노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졌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잠언 15:1).**